

DCON 2024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

# 가상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법무법인(유한) 바른 한서희 변호사

2024. 11. 13.

# CONTENTS

---

- I. 들어가며
- II. 가상자산 글로벌 동향
- III. 가상자산 제도 현황
- IV. 가상자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 V. 결론

---

# I 들어가며

---

#	이름	가격	1h %	24시간 %	7d %	시가총액	거래량 (24시간)	유통 공급량	최근
1	비트코인 BTC	₩95,902,454.06	▲0.02%	▲0.12%	▲2.93%	₩1,896,652,572,453,682	₩25,259,714,794,123 263,428 BTC	19,776,893 BTC	
2	이더리움 ETH	₩3,442,493.68	▼0.03%	▼0.66%	▼0.22%	₩414,513,468,985,960	₩13,407,990,400,107 3,896,311 ETH	120,410,815 ETH	
3	테더 USDT	₩1,380.06	▼0.00%	▲0.05%	▼0.48%	₩166,402,433,398,289	₩49,252,026,519,551 35,689,937,486 USDT	120,576,300,905 USDT	
4	BNB BNB	₩785,632.82	▼0.14%	▼0.39%	▼2.98%	₩113,209,586,865,682	₩1,972,876,776,417 2,511,942 BNB	144,099,869 BNB	
5	솔라나 SOL	₩229,062.54	▼0.52%	▲0.28%	▼3.55%	₩107,848,107,941,517	₩2,234,444,071,220 9,758,467 SOL	470,823,858 SOL	
6	USDC USDC	₩1,380.42	▲0.00%	▲0.03%	▼0.57%	₩48,140,093,531,922	₩4,796,840,299,529 3,474,730,177 USDC	34,873,497,797 USDC	
7	리플 XRP	₩704.24	▲0.34%	▼0.15%	▼0.95%	₩40,049,312,812,942	₩735,545,839,663 1,044,790,266 XRP	56,868,662,755 XRP	
8	도지코인 DOGE	₩219.62	▼0.11%	▲0.75%	▲15.24%	₩32,202,494,881,520	₩1,870,211,379,137 8,519,992,172 DOGE	146,629,136,384 DOGE	

출처 : <https://coinmarketcap.com/ko/>

- 2024. 11. 1. 기준 전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 약 US\$2,428,302,766,502이며 원화로는 약 3,210조원 정도 규모임(코인마켓캡, 코인게코 참조)
- 10위 권 내에 발행자산 중 테더, 솔라나, USDC, 리플은 미국계로 볼 수 있음

### 최고의 암호화폐 현물 교환

CoinMarketCap은 트래픽, 유동성, 거래량 및 보고된 거래량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도를 기준으로 거래소의 순위를 매기고 거래량을 파악합니다. [숨기기](#)

스팟	파생상품	DEX (현물)	DEX (파생상품)	대출			
#	거래	Trading volume(24h)	평균 유동성	주별 방문	#마켓	#순위	지원 화폐
1	Binance	₩11,938,779,754,114	890	10,966,849	1647	427	EUR, GBP, BRL and +8 more ⓘ
2	Coinbase Exchange	₩1,307,867,126,820	749	34,564	408	262	USD, EUR, GBP
3	Bybit	₩3,900,726,467,724	620	4,240,117	1037	680	USD, EUR, GBP and +3 more ⓘ
4	OKX	₩1,720,818,326,744	624	5,330,973	772	307	AED, ARS, AUD and +43 more ⓘ
5	Upbit	₩2,097,637,265,756	513	1,256,487	377	217	KRW
6	Kraken	₩582,957,578,783	783	847,531	1007	363	USD, EUR, GBP and +4 more ⓘ
7	HTX	₩1,592,323,826,627	436	2,533,427	869	725	ALL, AUD, BRL and +47 more ⓘ
8	Bitget	₩1,743,229,832,210	532	4,819,711	1195	816	USD, EUR, GBP and +12 more ⓘ

출처 : <https://coinmarketcap.com/ko/rankings/exchanges/>

- 거래소 순위의 경우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이 미국계, 업비트가 국내회사이고 Binance, Bybit, OKX, HTX는 중국계 회사임
- 해외 거래소의 경우 모두 여러 통화를 활용하여 가상자산 구매를 할 수 있음.

- 비트코인 ETF AUM은 현재 약 70조원 정도로 추산됨(블랙록 iShares Bitcoin Trust의 경우 약 40조원)
  - 미국 : 2024. 1.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이더리움 현물ETF 승인
  - 홍콩 :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 호주 :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 영국 :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 비트코인 ETF 트래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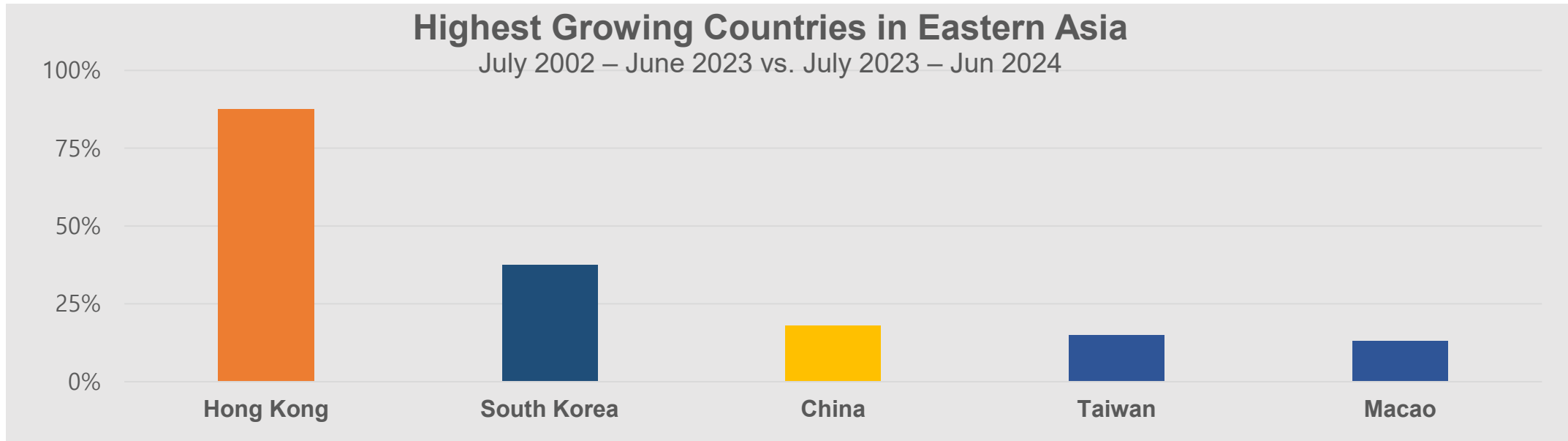
다음은 비트코인에 투자한 인덱스 펀드, 뮤추얼 펀드, ETF (상장지수펀드) 및 헤지펀드입니다. 일부 크립토 펀드는 비트코인같이 단일 자산인 반면, 다른 펀드는 더 넓은 범위의 기본 자산을 보유하거나 더 복잡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출처 : <https://coinmarketcap.com/ko/etf/bitcoin/>

■ 2024년 동아시아 가상자산 시장 현황

- 홍콩에서 가상자산 규제 도입을 통한 기관투자 허용,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등으로 비약적 성장을 보임
- 체이널리시스 2024년 암호자산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의 경우 동아시아 시장에서 작년 대비 85.6% 성장하였고 “글로벌 크립토 채택지수”에서 30위를 차지하였음(Chainalysis, The 2024 Geography of Crypto Report 2024. 10)



출처 : Chainalysis, The 2024 Geography of Crypto Report 2024. 10. p88



---

## II

# 가상자산 글로벌 동향

---



# 01. 미국

- Chainalysis의 “The 2024 Geography of Crypto Report”에 따르면 미국의 가상자산 채택 순위는 4위에 랭크
- 미국 시장은 2022년 FTX 파산 이후 상당한 정도의 회복탄력성을 보이고 있음

## The 2024 Global Crypto Adoption Index Top 20

국가	전체 순위	중앙화서비스 순위	리테일 중앙화 서비스 순위	디파이 순위	리테일 디파이 순위
미국	4	2	12	4	4
영국	12	12	21	9	8
캐나다	18	22	26	16	16
한국	19	15	16	33	33
중국	20	20	18	24	22
독일	21	21	30	23	21
홍콩	29	39	51	22	17

출처 : Chainalysis, The 2024 Geography of Crypto Report 2024. 10. p4

## 01. 미국

# Coinbase's global expansion: Leading the compliant international charge into 2024

Tl;dr: 2023 was a transformative year for Coinbase, globally, with significant progress made in new and existing markets across the product, regulatory and institutional functions. 2024 is gearing up to be just as exciting, as we double down on our efforts to make it even easier, simpler, and safer for more people around the world to experience the future of money.

<https://www.coinbase.com/blog/usd-transfers-now-available-in-singapore>

- 코인베이스는 현재 38개 국가로 진출함
- 코인베이스 월렛을 130개 국가 이상에서 활용하고 있음
- 브라질, 싱가포르, 캐나다, 유럽에 지사를 설립함
- 싱가포르의 소매 고객은 SWIFT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Coinbase 계정 간에 미국 달러(USD)를 이체할 수 있음. 코인베이스에서 USDC를 구매할 수 있음

# 01. 미국

## Paypal, EY and Google Cloud use Coinbase for B2B payments

TL;dr More Fortune 500 companies are partnering with Coinbase to explore crypto payments. With a 12-year track record of safely custodying crypto assets, we look forward to continuing our work with PayPal, Google Cloud, EY and others to bring crypto transformation to all sectors.

By Coinbase [Product](#), 2024년 10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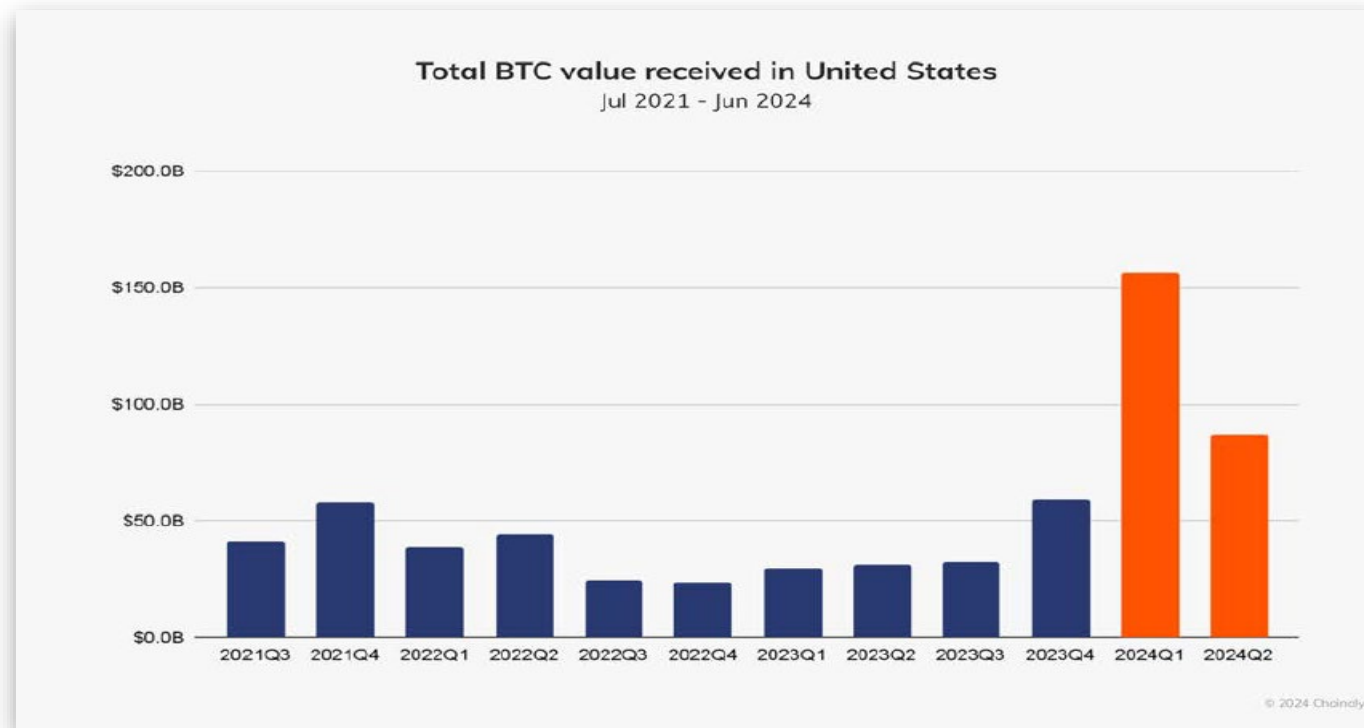


- 코인베이스는 2024. 10. B2B 결제 서비스를 제공
-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결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법인 계좌 개설이 가능한 구조임.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 사례가 증가함

<https://www.coinbase.com/blog/paypal-ey-and-google-cloud-use-coinbase-for-b2b-payments>

# 01. 미국

- 비트코인 ETP 출시 이후 미국의 비트코인 유입량이 증가하였음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블랙락의 경우 비트코인 ETP 출시 전인 2022년 부터 자사 고객들에게 코인베이스를 통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노출도를 높여 나갔음



출처 : Chainalysis, The 2024 Geography of Crypto Report, 2024. 10. P17

## 01. 미국

- 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2024. 11.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
- 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컨퍼런스에 참여하여 연설한 내용을 참고하면 향후 예상되는 정책은 다음과 같음 (<https://www.youtube.com/watch?v=1HHQPD-Lb5o&t=51s>, 브런치 스토리 “blockchains”)
  - (준비자산) Donald Trump 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21만개라고 밝히고, 당선시 전량 보유하겠다고 밝힘->전략자산으로의 비축이 예상됨
  - (경제 성장 촉진)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이며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힘
  - (가상자산 관련 규제완화) 규제환경을 정비하여 친가상자산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함.
    - 산업 성장에 유리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함. 기관투자자 참여 및 주류 금융시스템으로의 편입 등
- 실제 당선 이후 1비트코인의 가격은 8만 USD 돌파,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 순 유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금 ETF의 AUM을 초과함
  - 2024. 11. 7. 기준 비트코인 ETF( [iShares Bitcoin Trust\(IBIT\)](#) )의 AUM은 343억 USD인 반면 금 ETF([iShares Gold Trust\(IAU\)](#))의 AUM은 330억 USD(<https://www.cnbc.com/2024/11/11/the-ishares-bitcoin-etf-is-now-bigger-than-its-gold-counterpart-following-rush-into-crypto-on-trump-win.html>)

# 02. 홍콩

## 홍콩, 亞 처음으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상보)

▲ 강수지 기자 | ⓒ 승인 2024.04.15 18:43

비트코인·이더리움 가격 상승 반전



비트코인(BTC/USD) 틱 차트

[출처: 연협인포맥스]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홍콩이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암호화폐 투톱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

15일 더블록 등 가상화폐 전문 매체에 따르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차이나 자산운용 홍콩 법인이 현물 암호화폐 ETF와 관련된 소매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 회사는 OSL 및 BOCI 인터내셔널 등과 협력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발행할 계획이다.

하베스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도 두 개의 암호화폐에 대한 원칙적인 ETF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주요 자산 운용사의 홍콩 계열사 보세라 자산 관리와 헤시키 캐피탈도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홍콩에서의 ETF 승인 소식에 주말 사이 지정학적 충돌로 하락했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BTC/USD)은 한국시간으로 오후 4시 12분 현재 1.14% 상승한 66,511.3달러에 거래됐으며, 이더리움(ETH/USD)은 2.56% 상승한 3,239.86달러에 거래됐다.

한편, SFC로부터 현물 ETF 출시 승인을 받은 이들 운용사는 ETF 출시 일정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보세라 자산관리는 성명을 통해 "현물 ETF 도입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자산 배분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국제 금융의 중심지이자 가상자산의 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자산관리 회사 메탈파의 아드리안 왕 최고경영자(CEO)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며 "비트코인은 다른 옵션을 통해 노출될 수 있지만, 이더리움은 관련 주식이 없기 때문에 ETF가 비트코인에 비해 더 영향력 있고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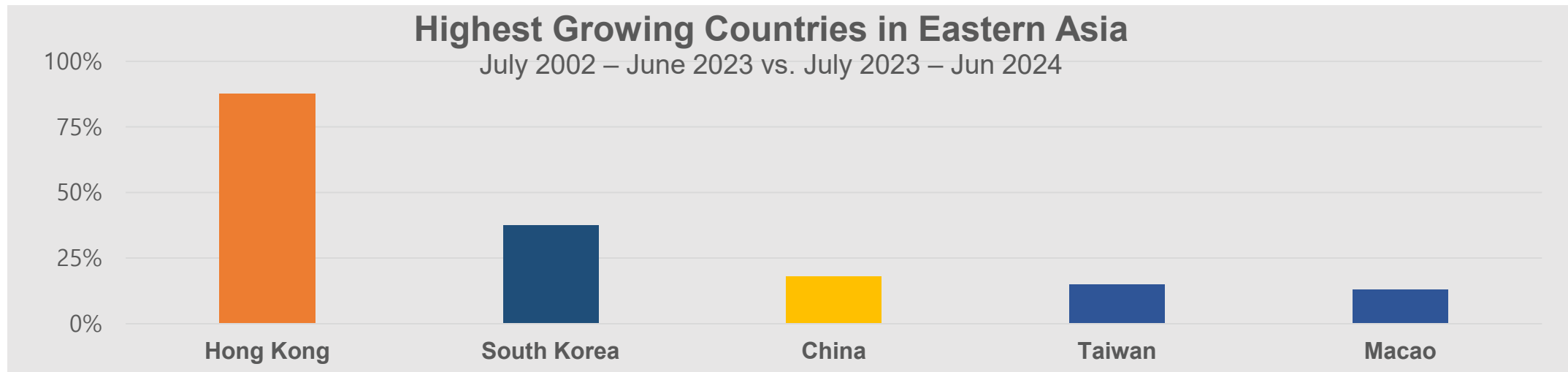
## 2024. 4. 18. 홍콩 비트코인 ETF 승인

출처 :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5830>

## 02. 홍콩

- 2023년 가상자산 시장의 허브가 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7-05/why-hong-kong-wants-to-be-a-hub-for-the-crypto-sector?leadSource=uverify%20wall>
- 홍콩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체계를 정립한 후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ETF의 출시도 허용하였음
- 홍콩은 2024년 동아시아에서 가장 급격하게 성장한 시장으로 전년 대비 85.6% 성장하였으며 리테일 시장에 비하여 기관 시장이 발달한 구조임



출처 : Chainalysis, The 2024 Geography of Crypto Report 2024. 10. p88

## 03. 영국

- 영국 정부는 2022년 4월 영국이 암호자산 기술의 글로벌 허브가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당시 재무부 장관이던 Rishi Sunak 총리는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음

영국을 암호화 자산 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드는 것이 저의 열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명한 조치는 기업이 이 나라에 투자하고 규모를 확장하며 혁신을 도모하도록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비즈니스와 그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영국에서 보고 싶습니다. 영국에서, 그리고 효과적인  
규제를 통해 기업이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투자하는 데 필요한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투자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영국 금융 서비스 산업이 항상 기술과 혁신의 항상 기술과 혁신의 최전선에 서도록 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입니다.

출처 : HM Treasury, 'Government sets out plan to make UK a global cryptoasset technology hub', 4 April 2022



## 03. 영국

### ■ 영국 재무부에서는 정책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음

- (i) 영국내 암호자산 산업의 성장과 독려 그리고 경쟁을 장려함(encourage growth, innovation, and competition in the UK)
- (ii) 소비자들로 하여금 위험과 관련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를 습득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enable consumers to make well-informed decisions, with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risks involved)
- (iii) 영국의 금융안정성을 보호함(protect UK financial stability)
- (iv) 영국 금융시장의 무결성을 보호함(protect UK market integrity).

### ■ 영국 재무부에서는 정책 수립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힘

- 동일 위험에 대한 동일 규제 결과의 달성(Same risk, same regulatory outcome)
- 비례적이면서 집중된 규제(Proportionate and focused)
- 민첩하고 유연한 내용의 규제 체계(Agile and flexible)

출처 : House of Commons Treasury Committee, Regulating Crypto Fifteenth Report of Session 2022-23 Report, together with formal minutes relating to the Report, p10; HM Treasury, 'Future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regime for cryptoassets: Consultation and call for evidence', 1 February 2023, p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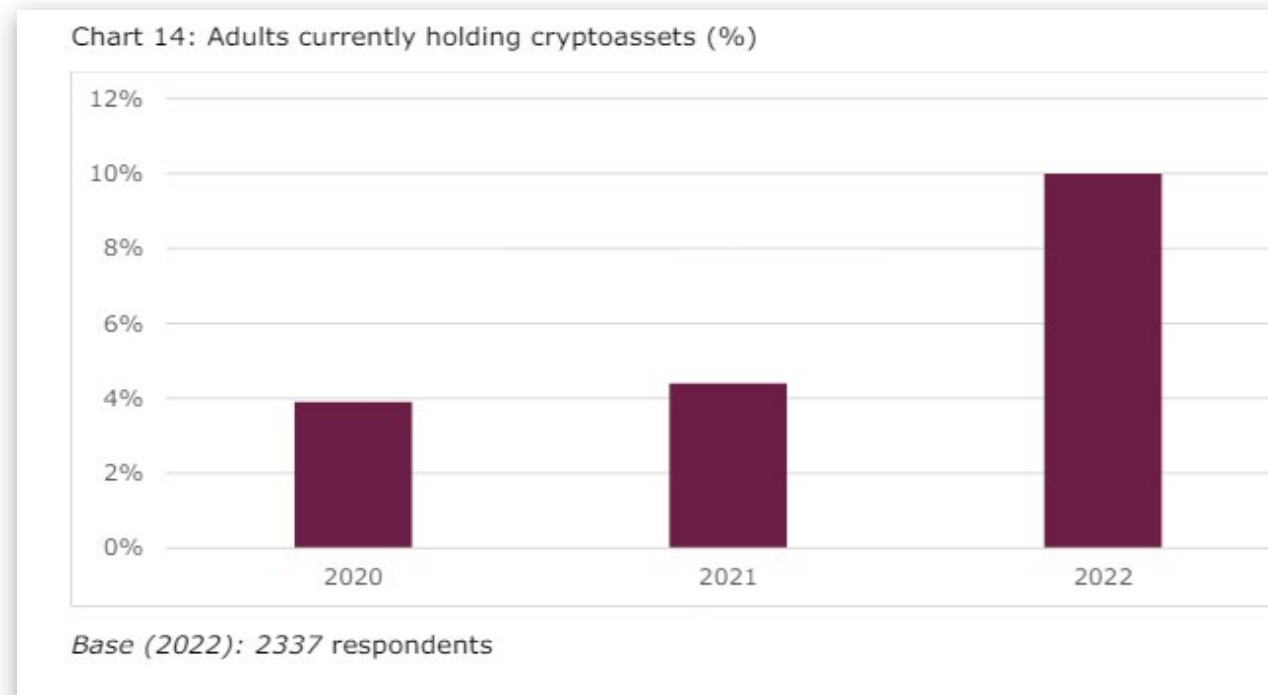
## 03. 영국

- 나아가 영국 재무부의 입장에서는 암호자산기술의 특성과 위험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산업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책임있는 혁신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또한 암호자산 산업은 고도로 글로벌화 되어 있고 성질상 탈국경화 되어 있으므로 영국 소비자들이 외국 회사 또는 외국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막는 것도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
- 특히 영국 재무부에서는 영국에서 글로벌에서의 시스템이나 규제체계와 다른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강화할 경우, 암호자산 활동을 해외로 이전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영국 내에서 더 안전한 방식으로 잠재적 이익을 자본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는 반면 소비자들은 오히려 여전히 위험에 남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임**
- The cryptoasset industry is highly globalised and often borderless in nature. UK consumers currently can access products and services provided by overseas firms or applications and protocols without a clear geographic nexus. If the UK were to unilaterally adopt a system which is out of step with approaches taken globally, this could push cryptoasset activity offshore, reducing the UK's opportunity to make it safer and capitalise on the potential benefits, while leaving consumers exposed to residual risks.

출처 : House of Commons Treasury Committee , Regulating Crypto: Government Response to the Committee's Fifteenth Report (2023. 7) p4,5

### 03.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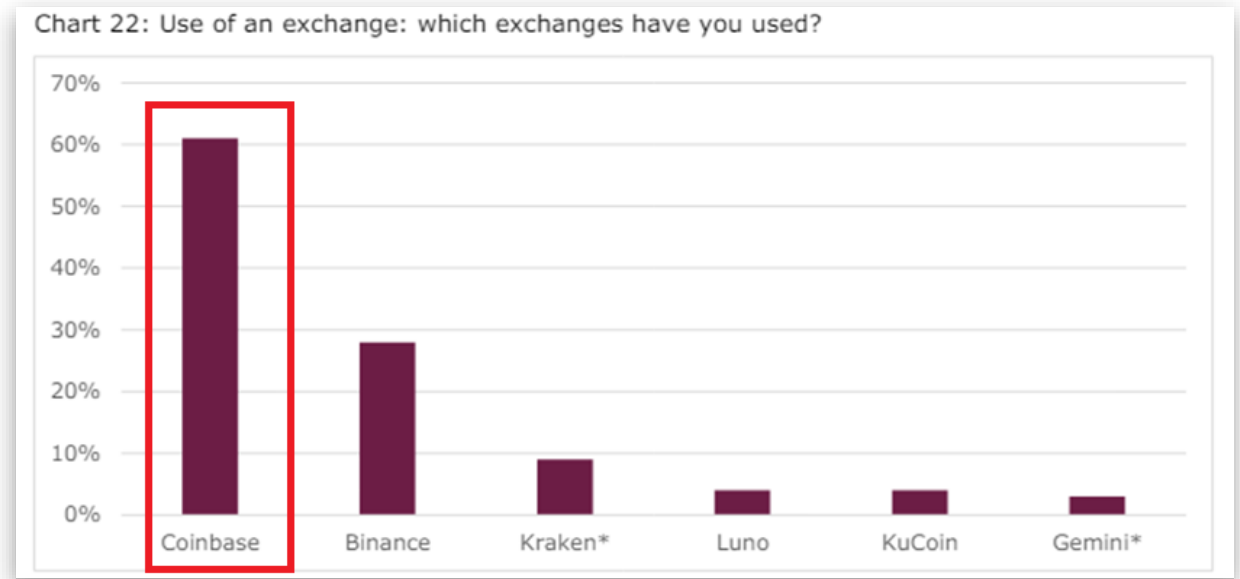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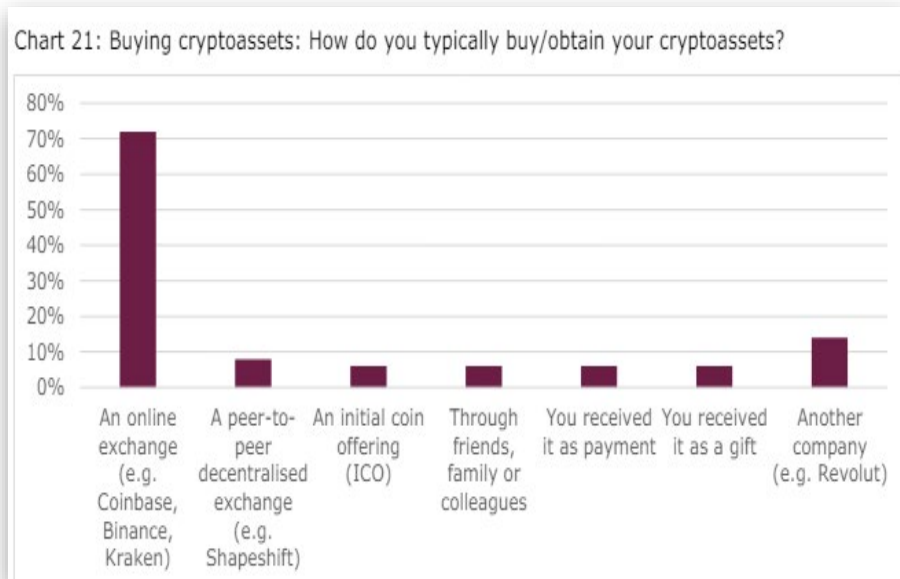
- 이러한 전제 하에서 영국 재무부와 FCA는 규제체계를 설계 중이며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영국 FCA는 2023. 6. 8. Research Note: Cryptoassets consumer research 2023 (Wave 4)를 발표함
- 암호자산 구매자의 소비자 행동 패턴을 연구하고 잠재적 피해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암호자산 소비자 조사를 실시함. 상당한 비율로 보유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줌(크립토 채택 지수 12위)



출처 : Research Note 8 June 2023 Public Research Note: Cryptoassets consumer research 2023 (Wave 4)

### 03. 영국

- 영국 FCA는 2023. 6. 8. Research Note: Cryptoassets consumer research 2023 (Wave 4)에 따르면 보유자의 72%가 암호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구매하였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구매하였음을 알 수 있음.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를 통해서 구매하였음(그외 미국계 거래소인 크레켄이나 제미니를 통해 구매)
- 영국에서도 미국계 거래소의 약진이 두드러짐



출처 : Research Note 8 June 2023 Public Research Note: Cryptoassets consumer research 2023 (Wave 4)

## 03. 영국

- 영국 FCA는 2023. 6. 8. Policy Statement PS23/6 Financial promotion rules for cryptoassets 를 발표함
- 일반소비자들은 암호자산에 대하여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음. 다만 이를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는 일정한 판매 규칙을 준수해야함
- FCA에 등록된 암호자산사업자만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명확한 위험 경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금지, 고객 분류 요건 설정 및 적절성 평가 등을 수행해야 함

The screenshot shows the FCA website's news page. At the top left is the FCA logo (Financial Conduct Authority). To the right is a search bar. Below the logo are navigation tabs: 'About us', 'Firms', 'Markets', 'Consumers', 'News' (highlighted in red), and 'Publications'. The breadcrumb trail reads: 'Home > News > FCA updates position on cryptoasset Exchange Traded Notes for professional investors'. The main title is 'FCA updates position on cryptoasset Exchange Traded Notes for professional investors'. Below the title are social media icons for LinkedIn, Twitter, and Email, and a 'Print Page' icon. A metadata line shows: 'Statements | First published: 11/03/2024 | Last updated: 20/03/2024 | See all updates'. The main text begins with: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will not object to requests from Recognised Investment Exchanges (RIEs) to create a UK listed market segment for cryptoasset-backed Exchange Traded Notes (cETNs). These products would be available for professional investors, such as investment firms and credit institutions authorised or regulated to operate in financial markets only.' The text continues with details about controls, risk appetite, and the ban on retail consumers.

출처 : <https://www.fca.org.uk/publications/policy-statements/ps23-6-financial-promotion-rules-cryptoassets>  
"Policy Statement PS23/6 Financial promotion rules for cryptoassets"

## 03. 영국

- 영국 FCA는 2024. 3. 11.자 발표를 통해서 암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를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함
- 정규시장인 Recognised Investment Exchanges(RIE)에서 개별 상품을 신청하면 건별로 상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임
- 영국의 경우 암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 리테일 소비자 즉 일반 개인투자자에게는 판매하지 않고 전문투자자들(professional investors) 전용시장에서만 판매된다고 발표함

## 03. 영국

### MARKET NOTICE

25 March 2024

#### N03/24 – Admission of Bitcoin and Ethereum ETNs

1. Further to Stock Exchange Notice N02/24, published on 11 March 2024, in which the London Stock Exchange (the “**Exchange**”) announced it would accept applications for the admission to trading of Bitcoin and Ethereum Crypto ETNs in the second quarter of 2024, we can confirm that applications can be made from 8 April 2024.
2. Subject to the approval by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the “**FCA**”) of the base prospectuses, which will be required to list Crypto ETNs on the Main Market and also to the Official List of the FCA, the Exchange is proposing that the first day of admission to trading of those Crypto ETN securities will be Tuesday 28 May 2024.

- 런던증권거래소에서는 2024. 4. 8.부터 가상자산 ETN 거래 허가를 위한 신청을 접수(거래소 공지 N02/24)
- 영국 FCA의 거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가상자산 ETN의 증권거래 개시일을 2024. 5. 28.로 제안하고 있음
- 2024. 5. 28. 상장을 원하는 발행인은 2024. 4. 15.까지 거래소에 투자자설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거래소 공지 N03/24)
- 개인전문투자자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함(일반 투자자는 제외, 기관 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https://docs.londonstockexchange.com/sites/default/files/documents/crypto\\_etn\\_admission\\_factsheet.pdf](https://docs.londonstockexchange.com/sites/default/files/documents/crypto_etn_admission_factsheet.pdf)



## 04. 일본

- “암호자산 교환업자는 현물 암호자산 및 암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음
-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금지(금융상품거래법 제185조의22 내지 제185조의24).
- 일본의 경우 암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가 조성 및 판매되고 있음
  - SBI알터너티브펀드합자회사가 2022. 2. 1. 설정한 SBI암호자산펀드(익명조합 1호)의 경우 개인 적격 투자자에게도 판매되는 상품임
  - 투자적격자로는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자”로서 직업 구분에 따라 금융자산 3,000만 원 이상 또는 5,000만 원 이상일 것을 요구
- 현재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는 출시되지 않고 있음
- 기관투자자의 암호자산 투자는 허용되고 있음

## 05. 정리

-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로 글로벌 동향이 변화되고 있음.
  - 시장이 기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 미국 주도의 시장이 되고 있음
- 기관투자자 시장과 리테일 시장이 분화되어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대다수의 시장에서 법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음
- 현재 글로벌 시장은 비트코인 ETF와 기관투자가 가능한 국가와 불가능한 국가로 양분되어 시장의 발전속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 Ⅲ

## 국내 가상자산 제도 현황

---

## 01.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상 규제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규정(제7조)
- 신고 수리를 위한 요건으로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및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를 할 것을 정함. 다만 현금을 취급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음
- 자금세탁방지등을 목적으로 의심거래보고의무(제4조) 및 고객 확인의무(제5조의 2), 전신송금시 정보제공 의무(제5조의 3)등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 제1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기타 영업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 20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음
  -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관리/ 예치금의 구분 관리/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고객과 거래 금지/ 미신고 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한 거래 금지 등
- 특정금융정보법상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법인의 실명확인계좌 개설이 불가하여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는 어려운 상황임

## 02.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
  -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금전인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관리하도록 함
  - 시행령에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은행을 관리기관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규율
  -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 감독규정에서 그 비율을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1일 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의 80% 이상으로 정함
  -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감독규정이 정하는 기준(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

## 02.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도 법률에 규정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음
- 시행령의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될 예정임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02.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
-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 가능함
- 부당이득액(50억원 이상)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

## 03. 2단계 입법이 예정되어 있음

- 국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당시 부대의견에서는 다음에 대한 연구보고를 요청함
  - (1)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문제 개선 방안 마련
  - (2)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디지털자산 정보 제공 통합시세 및 공시 시스템, 사고 발생 시 입증책임 전환 규정 제정 방안 마련
  - (3)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개선 방안 마련
  - (4) 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의 은행 실명확인입출금계정제도 개선 방안 마련
  - (5)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거래소의 유통량, 발행량 관련 통일된 기준 마련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6) 금융위원회의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관련 시행령 제정 방안 마련
  - (7)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 검사권 위탁
  - (8)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거래소 공통 상장 절차 개선 지원



## 04. 국내 가상자산 제도의 현재

-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서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고 고객 확인의무 등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한 시장으로 개선되었고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음
-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제도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체계를 통해 시장규제의 일부도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를 통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 부대의견을 통해서 2단계 입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금융규제적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는 이해상충 방지 제도 등에 대한 고민과 스테이블 코인 등에 대한 고민은 존재하지만 경제성 분석이나 산업 발전의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은 추가 논의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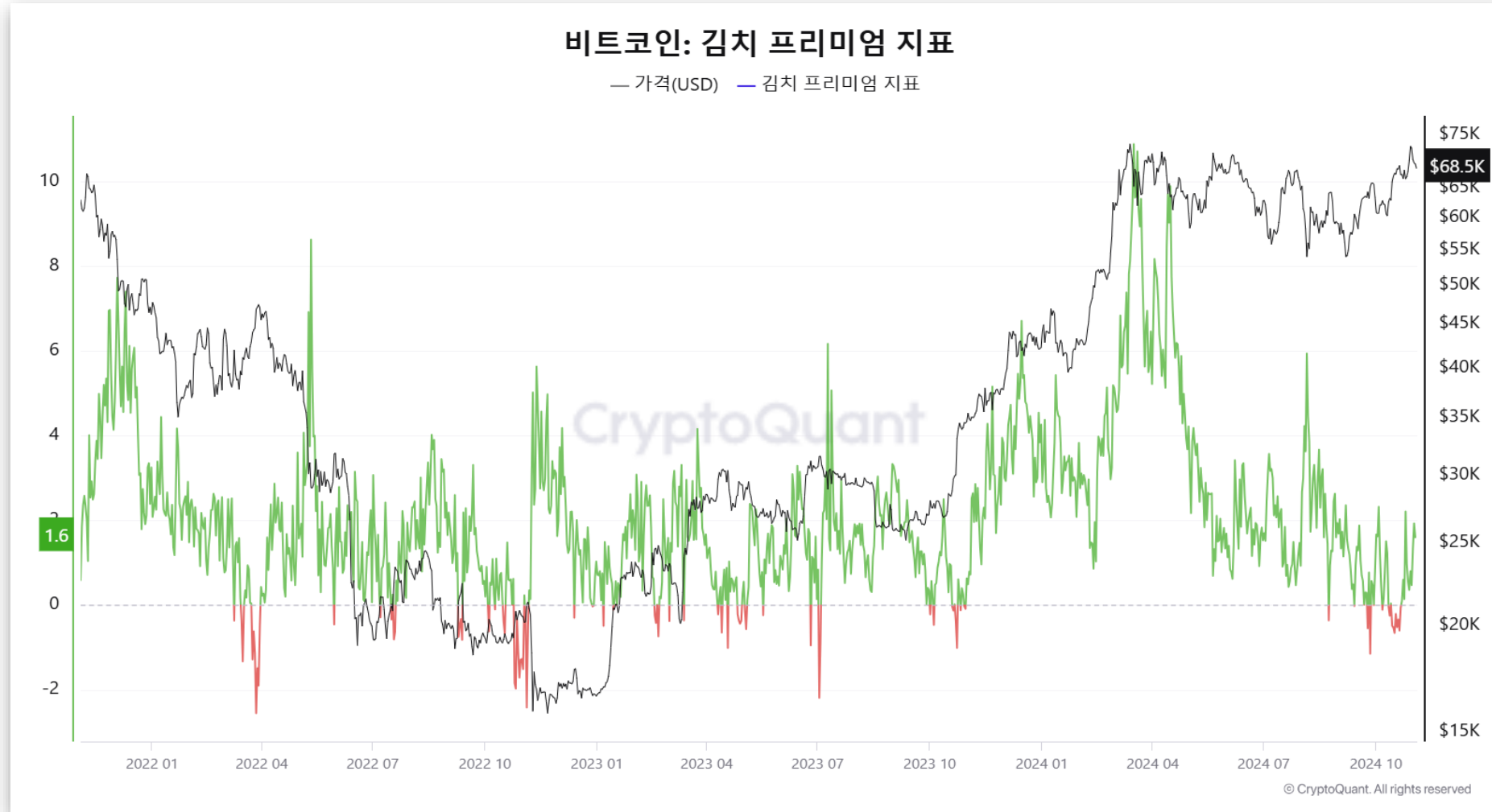
---

# IV

## 가상자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

# 01. 해외 가상자산 시장과 가격 괴리현상 해소



출처 : 크립토퀀트

<https://cryptoquant.com/ko/asset/btc/chart/market-data/korea-premium-index?window=DAY&sma=0&ema=0&priceScale=log&metricScale=linear&chartStyle=line>

## 01. 해외 가상자산 시장과 가격 괴리현상 해소

- 그래프상으로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글로벌 시세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편임. 특히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과열기에는 해외 가상자산시장에 비하여 최대 10%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냉각기에는 오히려 시장보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기도 함.
- 이러한 가격 괴리 현상으로 인해 국내시장의 경우 글로벌 시장보다 가격 변동성이 더 높을 수 있어 국내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함.
- 가격 괴리 현상의 원인은 비트코인의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하고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며 또한 과도하게 “리테일 중심 시장”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표지이기도 함.
- 해외의 경우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있고 국가간 거래 자금 이동이 우리나라보다 원활하여 앞으로 가격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미국 시장의 경우 비트코인 ETF 이후 기관 투자가 더 활발해지고 있으므로 미국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가격과 지속적으로 괴리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
- <https://www.cnbc.com/2024/04/03/south-koreas-kimchi-premium-in-the-spotlight-after-btcs-record-highs.html>

## 01. 해외 가상자산 시장과 가격 괴리현상 해소

- Bitcoin Microstructure and the Kimchi Premium 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한국 시장의 비트코인 가격 변동폭이 유럽 시장보다 더 크고, 그 격차를 유지 기간도 길다고 함. 이 논문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유로존과 달리 외국인투자나 외국인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도 원인 중의 하나라고 언급하고 있음

출처 : Choi, Kyoung Jin and Lehar, Alfred and Stauffer, Ryan, Bitcoin Microstructure and the Kimchi Premium (January 4, 2022).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3189051> or <http://dx.doi.org/10.2139/ssrn.3189051>, p20 참조

- 국내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해외 이용자의 거래가 금지되고 있음. 원칙적으로 해외 거주자가 국내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 없음
-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USD를 국내에 반입하는 행위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규제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외국환을 수취하는 은행에서 입금 자체를 차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함

## 01. 해외 가상자산 시장과 가격 괴리현상 해소

- 장기적 관점에서 해외 이용자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입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 KYC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면 해외 현지법에 따라 설립된 지사에서 KYC를 수행한 고객에 한정하여 국내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의 매수를 허용하거나 해외 기관을 대상으로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있음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가상자산 매수처로 코인베이스나 제미니 등 여러 거래소를 사용하고 있음)
  - ✓ 국내 시장의 경우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스템적으로 우수하며 국가의 규제를 받는 안정된 시장이기 때문에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존재함
- 해외 이용자 및 외국 기관투자자 유입이 가능해질 경우 가상자산과 관련된 산업이 외화 창출 수단이 될 수 있음

## 02. 기관시장 활성화

-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시장은 리테일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으로서 기관투자는 사실상 금지되어 있으며 법인 투자는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 반면 해외 시장의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전문투자자 또는 기관투자자 유입을 금지하지 않음(오히려 개인 투자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여 영국의 경우 광고 규제를 두고 있음)
- 비트코인 ETF 등이 허용될 경우 법인과 기관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노출될 것임. 사전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안정적인 거래 경험을 쌓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일반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이 가능해지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현재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금융위원회, 2024.11. 6.자 보도자료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 「가상자산위원회」 향후 운영방향과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이슈를 논의하였습니다”)
- 순차적으로 기관투자자도 가상자산의 매도 및 매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시장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03. 비트코인 ETF

- 비트코인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103조의 신탁대상 자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움
- 자본시장법상 불명확성이 해소된 이후에야 비트코인 현물 ETF가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로 가상자산산업과 관련된 국가간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라 비트코인가격과 글로벌 시장의 가격 격차도 현재 보다 더 커질 우려가 있음
-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와 관련된 법령정비가 필요함



## 03. 비트코인 ETF

- 비트코인 ETF의 판매 및 유통을 위해서는 해외 비트코인 ETF와 가격의 차이가 발생해서는 아니됨
  -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기 위해서는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조달해야 하므로 보유 가상자산의 가격에 따라서 ETF 단위당 가격이 책정될 것임
  - 그런데 해외 ETF의 가격과 국내 ETF는 조달한 기초자산 즉 비트코인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ETF 상품의 단위가격도 다를 가능성이 있음. 그렇다면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수요가 국내 비트코인 ETF 수요보다 커질 수 있음
  -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의 판매가 가능하려면 글로벌시장과 가격 괴리현상을 해소해야함(즉 김치프리미엄 해소)**
    - ✓ 해외 기관과 같이 KYC 위험이 적은 주체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허용해야 김치프리미엄 문제의 해소가 가능할 것
    - ✓ 해외 기관투자자가 우리나라 사업자를 통해 비트코인을 조달하여 해외에서 ETF를 설정할 가능성이 열린다면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현재는 주로 Coinbase나 Gemin 등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조달함)

## 04. 가상자산과 관련된 추가 입법 방향성

- 가상자산의 위험성 자체에 대한 논란은 없으나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누어져 있음
- 영국은 매우 적극적으로 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가상자산산업 발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
- 규제체계 설계와 관련하여서는, **영국 재무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 즉, “글로벌에서의 시스템이나 규제체계와 다른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강화할 경우, 암호자산 활동을 해외로 이전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영국 내에서 **더 안전한 방식으로 잠재적 이익을 자본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는 반면 소비자들은 오히려 여전히 위험에 남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할 수 있음(The cryptoasset industry is highly globalised and often borderless in nature. UK consumers currently can access products and services provided by overseas firms or applications and protocols without a clear geographic nexus. **If the UK were to unilaterally adopt a system which is out of step with approaches taken globally, this could push cryptoasset activity offshore, reducing the UK’s opportunity to make it safer and capitalise on the potential benefits, while leaving consumers exposed to residual risks.**)
- **글로벌 규제 체계의 변화 양상과 속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가상자산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산업정책이 필요함**

---

# V

# 결론

---

- 가장 전형적인 미래가치의 구체화는 새로운 기업이다. 때로 이것은 하나의 이윤획득 가능성의 구체화에 불과하며 사람들은 모든 미래가치를 이 도식으로 가져올 수 있다. 미래가치는 새로운 결합의 상관개념이고 이는 새로운 결합이 가치언어로 번역된 것이다.< 조지프 슈페터, “경제발전의 이론” 중에서>
- 글로벌 및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산업 발전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감사합니다

## Contact

---

법무법인(유한) 바른 | 한서희 변호사  
suhhee.han@barunlaw.com

